

The Status of Metal Can Industry in Korea

국내 제관업계 동향

I. 2020년 금속캔 판매실적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철순)은 국내 50여개 제관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제관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판매량과 관련한 정보는 정부기관 및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제공하고 있다.

제관공업협동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금속캔 판매량은 83억 3,300만 관으로, 2019년 판매량 81억 9,300만 관보다 1억 3,700만 가량 늘어났다. 2019년 다소 줄어들었던 실적이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Writer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자료 제공

Contents

- I. 2020년 금속캔 판매실적
- 1. 음료캔 판매량
- 2. 식품 및 기타캔 판매량
- II. 높아지는 알루미늄캔 인기
- III. 국내 음료캔 수급 문제 발생

1. 음료캔 판매량

국내 금속캔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료캔은 2020년 66억 1,300만 관이 판매되며 2019년 64억 9,300만 관에 비해 1억 2,000만 관이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캔은 2019년 판매량 62만 3,500만 관보다 1억 3,300만 관이 줄어 61만 200만 관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커피관 6억 9,700만 관, 주스, 스포츠음료, 전통음료, 기타 등 15억 1,900만 관으로 줄은 반면, 맥주관은 17억 200만 관, 탄산관은 21억 8,400만 관으로 판매량이 늘어났다.

스틸 2피스 음료캔의 경우 맥주캔과 탄산캔의 판매량은 없고, 커피캔은 2억 8,500만 관으로 지난해 500만 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주스 등 기타음료용 캔은 1억 9,700만 관이 판매돼 총 4억 8,200만 관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19년 2억 3,800만 관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스틸 3피스 음료캔 역시 탄산과 커피캔의 판매량은 없었다. 주스 등 기타음료용 캔만 2,900만 관 판매되었다. 이는 지난해 스틸 3피스 음료캔 총 판매량인 2억 관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 스틸캔 판매량은 2피스 4억 8,200만, 3피스 2,900

만으로 총 5억 1,110만 관을 판매, 2019년 2억 5,800만 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 및 기타 캔 판매량

통조림은 농산물 2,400만 관, 수산물 5억 1,600만 관, 축산

물 2억 9,700만 관 등으로 총 판매량 8억 3,700만 관을 기록하며 2019년 8억 2,200만 관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어서 분유 2,400만 관, 제약 및 기타 캔 300만 관, 에어로졸 6억 7,900만 관, 일반 캔 1억 7,700만 관 등이 판매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 1] 금속캔 판매실적 비교(내수, 수출 포함)

(단위: 백만 개)

구 분			2020	2019	2018	2017	2016	
음료관	알루미늄	2PCS	맥주관	1,702	1,616	1,880	1,927	1,811
			탄산관	2,184	2,184	1,616	1,882	1,748
			커피관	697	920	804	833	864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519	2,083	1,675	1,651	1,799
		계	6,102	6,235	6,241	6,159	6,178	
	스틸	2PCS	맥주관					
			탄산관		5			
			커피관	285	50	265	306	312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97	188	225	271	186
			소 계	482	238	495	577	498
		3PCS	탄산관					
			커피관		13	19	25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29	20	29	38	44
			소 계	29	20	42	57	69
계	511	258	537	634	567			
합 계			6,613	6,493	6,778	6,793	6,762	
통조림관	농산물		24	31	34	44	43	
	수산물		516	497	457	405	506	
	축산물		297	294	305	291	267	
	합 계		837	822	796	740	816	
분유관	분유		24	26	25	26	33	
미술관	계약관 및 기타3		3	2	2	3	3	
에어로졸	에어로졸, 부탄		679	660	629	615	599	
일반관	0.5~20ℓ 관		177	190	199	192	196	
총 계			8,333	8,193	8,429	8,369	8,409	

II. 높아지는 알루미늄캔 인기

알루미늄은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재활용을 해도 신제품과 같은 품질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활용 용이성이 높은 평가를 받는데다가 탈 플라스틱화 열풍에 힘입어 알루미늄캔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커피전문점, 수제맥주판매점 등에서 알루미늄캔에 담아 배달·포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플라스틱컵을 알루미늄 캔으로 교체,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반이 쉽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말부터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세계 원자재 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중국이 빠르게 코로나19 여파에 벗어나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탓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캔 음료를 마시면서 덩달아 알루미늄 수

요를 회복시켰다는 얘기가. 트라피구라 그룹(Trafigura Group Pte. Ltd)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음료수캔, 의약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포장시장이 알루미늄에 대한 심각한 수요 과포를 균형 있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III. 국내 음료캔 수급문제 발생

국내 시장의 경우, 지난 3월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한일제관 공장에서 불이 나 6개동 중 1개동 3만3천㎡가 전소되면서 음료캔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일제관은 국내에 유통되는 음료용 금속캔 생산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 1위 기업으로, 불이 난 곳은 시중 금속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피스 알루미늄캔 생산라인이어서 음료캔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국내 음료업체들은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당장 확보 가능한 용량의 금속캔으로 변경을 시작했다. 먼저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 용량을 245ml에서 240ml로 5ml 줄였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슬릭캔 제품 대부분은 240ml이지만 포카리스웨트는 유일

하게 245ml로 출시됐었는데, 245ml 알루미늄캔 전량을 수급해왔던 한일제관 생산라인이 전소되며 수급처를 타 업체로 바꾸게 돼 용량을 240ml로 줄였다.

업계 1위 롯데칠성음료 역시 최근 칠성사이다, 펍시콜라, 밀키스, 핫식스 등 탄산음료 제품 대부분을 330ml 슬릭캔에서 355ml 스테미캔으로 대체했다.

이번에 전소된 금속캔 공장은 245ml와 더불어 330ml 슬릭캔을 주력 생산해 왔다.

그동안 금속캔 제조업계 2~3위였던 테크팩솔루션과 롯데알루미늄 등은 예상치 못한 발주량 풍년을 맞게 됐다. 업계는 이 같은 금속캔 생산 차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빨라도 내년이 돼야 수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제관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존에 재고가 상당량 확보된 상태라 한일제관 화재의 영향은 제한적이라 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제조설비를 신속하게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라 금속캔 수급 정상화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